

# 콜럼부스의 대서양 항해

-항해의 경과와 역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김성준\*

A Case Study focused on Columbus's Sailing

- A Study on the European Expansion in the later Middle Age -

*Sung-June Kim\**

<목 차>	
I. 머리말	4. 4차 항해
II. 콜럼부스 대서양 항해의 배경	IV. 대서양 항해의 역사적 의의
1. 콜럼부스의 지리관 형성의 지적 배경	1. 항해사적 의의
2. 스페인 궁정과 콜럼부스의 재휴	2. 항해의 성과와 영향
III. 항해의 경과	V. 맺음말
1. 1차 항해	
2. 2차 항해	참고문헌
3. 3차 항해	

## Abstract

The European expansion in the later middle age, as Adam Smith stated, influenced greatly on development of the world history. In the various events of the European expansion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by Christopher Columbu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effects of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have still continued to the present.

I have interested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western civilization has seized on the hegemony of the world over other civilizations. As many scholars pointed out, the most distinguished difference between the western civilization and other civilizations is that the western civilization was maritime-oriented, while other civilizations were continental-oriented.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So I set up the maritime history on the theme of my study in order to ruminate upon meaning of the sea-power that is one of the motivating forces to drive history. Maritime history is not simply about that is maritime affairs, but a branch of history that inquires into inter-relations between maritime affairs and inland affairs. Maritime history constitutes of history of naval war, history of shipping and history of marine development. As above reasons, I have interested the European expansion in the later middle age that maritime activity was the most vigorous in the history. This is a case study to compose maritime history.

## I. 머리말

15세기에 유럽이 대서양과 신대륙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해 간 것은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sup>1)</sup> 왜냐하면 유럽의 지리상의 팽창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콜럼부스(Christopher Columbus, 1451?~1606)에 의한 신대륙 '발견'<sup>2)</sup>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콜럼부스와 관련된 문제는 아메리카인이나 유럽인, 혹은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간에 역사적으로 우리 모두와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아담 스미드(Adam Smith)가 평가한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sup>4)</sup> 가운데 하나인 콜럼부스의 대서양 항해를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는 유럽 팽창의 상징적인 사건인 콜럼부스의 대서양 항해의 경과와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성된 것이며, 이는 해양사(Maritime history)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유럽이 15세기 이후 비서구 세계로의 팽창 및 침투를 본격화하여 지구상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동인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천착한 필자는 서구문명과 비서구문명의 가장 큰 차이는 서구문

명이 기본적으로 해양지향적인 문명인 반면, 비서구문명은 대륙지향적인 문명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필자는 서구문명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며 역사를 발전시킨 추동력의 하나인 해양력(Sea Power)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해양사'(Maritime History)를 연구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해양사는 단순하게 해양을 소재로 한 역사는 아니며 '해양과 내륙 역사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역사의 한 분과라 할 수 있으며, 이에 크게 해전사, 해운사, 해양개척·개발사가 포함될 수 있겠다. 필자가 역사상 해양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5세기 지리상의 팽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연유에서 이다.

## II. 콜럼부스 대서양 항해의 배경

### 1. 콜럼부스의 지리관 형성의 지적 배경

콜럼부스는, 포르투갈의 탐험대와는 달리, 대서양을 서쪽으로 항해하여 인디즈(Indies)에 도달하려고 계획하였지만, 그것을 개인의 힘으로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그는 막대한 재력을 갖춘 궁정의 후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러한 후원을 얻기 위하여 각국 궁정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콜럼부스는 자신의 계획의 타당성과

1) Fernand Braudel,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 : 일상생활의 구조』 (까치, 1995), p. 577.

2) 필자는 '발견'이란 용어는 서구의 학자들이 자기 선조들의 업적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개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5세기 유럽의 대팽창을 칭할 때에는 '발견'이란 말 대신 '탐험'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단, 서양 학자들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때는 그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발견'이란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John R. Hale,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북스 편집부 역, 『탐험시대』 (한국일보, 1978), pp. 11~12를 참조하라.

3) Charles E. Nowell, The Columbus Quest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44, no. 4, 1939, p. 802.

4) Adam Smith, 김수행 역, 『국부론』 (동아출판사, 1992), p. 123.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당대의 지리학적인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콜럼부스는 먼저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 Kl-audios, 2세기?)의 학설을 받아들여 지구의 둘레를 18,000 마일로 추산했고, 다이이(d'Ailly)의 『세계의 像』(Imago Mundi)과 성서의 에즈드라스(Es-dras)서의 문구를 받아들여 지구의 6/7이 육지로 되어 있고<sup>5)</sup> 그 나머지만 1/7만이 바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황금향인 씨팡고(Cipango, 일본)까지의 바다는 길어야 2,600여 마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sup>6)</sup> 이러한 생각은 콜럼부스로 하여금 씨팡고까지의 거리를 실제 거리인 12,000 마일 보다 1/4이나 작게 계산케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지리학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카타이(Cathay, 북중국)는 오늘날 멕시코 서해안에, 씨팡고는 서인도 제도 상에 위치하게 되었다.<sup>7)</sup>

그렇다면 콜럼부스로 하여금 대서양을 서쪽으로 항해하더라도 아시아 대륙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도록 만든 지리학적인 지식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콜럼부스는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45~1324)의 『동방견문록』, 피우스 2세(Pius II, 1405~1464)의 『역사』(Historia), 피에르 다이이(Pierre d'Ailly)의 『세계의 상』(Imago Mundi), 플루타르크(Plutarch)의 『영웅전』과 토스카넬리(Paolo Toscanelli, 1397~1482)의 서한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주의깊게 읽었다. 이 가운데 콜럼부스가 자신의 지리학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본으로 삼았던 책은 특히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다이이의 『세

계의 상』, 토스카넬리의 서한이라고 알려져 있다.<sup>8)</sup>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대서양 횡단항해를 준비하던 콜럼부스가 이 책들을 어떻게 자신의 탐험 계획을 구체화하고 후원을 얻는 데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콜럼부스가 가장 주의깊게 읽은 책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sup>9)</sup>이라고 알려져 있다. 콜럼부스가 마르코 폴로의 책에서 가장 관심있게 본 내용은 “아시아 본토로부터 남동쪽 1,500 마일에 황금이 가득한 씨팡고라는 섬이 있다”<sup>10)</sup>는 구절이었으며,<sup>11)</sup> 이러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에 대한 묘사와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식 지리학이 결합되어 콜럼부스의 탐험의 지적 배경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sup>12)</sup>

마르코 폴로의 작품이 14세기 이래로 유럽인들에게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킨 주원천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3)</sup> 그러므로 여기서는 폴로의 작품이 콜럼부스에게 동방에는 풍부한 산물들과 대한(大汗)이 다스리는 카타이(Cathay)라는 곳이 있으며, 그곳에서부터 1,500 마일 떨어진 곳에 황금이 많이 나는 씨팡고(Cipango)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과 그곳에 도달하려면 육지를 통해 가는 것<sup>14)</sup> 보다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정도로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지리학자요 추기경인 피에르 다이이(Pierre d'Ailly)의 『세계의 상』이 콜럼부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다. 콜럼부스가 읽었던 라틴어 판본은 1480년대 초반에 발간된

5) Columbus, Letter to the Sovereigns dated 18th Oct. 1498, in *Four Voyages to the New World, Letters and Selected Documents*, 3rd. ed.(Corinth Books, 1969), ed. by R.H. Major, pp. 139~141 참조

6) James E. Gillespie, *A History of Geographical Discovery 1400~1800*( N.Y. ; Henry Holt and Company, 1933), pp. 27~28 참조.

7) R.A. Skelton, 안재학 역, 『탐험지도의 역사』(새날, 1995), p. 86 참조.

9) 콜럼부스는 1485년 Anvers에서 인쇄된 라틴어 판본을 소장하고 있었다.

10) 정운용 譯, 『동방견문록』(을유 문화사, 1992), p. 218.

11) George Nunn, The Imago Mundi and Columbu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40, no. 4, Jul., 1935, p. 661.

12) George Nunn, *Ibid.*, p. 662.

13) R. A. Skelton, *op. cit.*, pp. 35, 53.

14) 마르코 폴로는 자신이 大汗의 영토에 도달하는 데 3년이 소요되었다고 쓰고 있다. Heers, De Marco Polo à Christophe Colomb ; Comment lire le Devisement du Monde?, *Medieval History*, 10, 1984, p. 142 재인용.

것으로, 그는 이 책을 주의깊게 읽었고 세심하게 방주를 달았다. 콜럼부스는 『세계의 상』의 제 8장 ‘거주가능한 지역에 관하여’(De quantitate terrae habitabilis)에 집중적으로 방주를 달아 놓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대서양 서쪽 바다는 보통 알려진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바다가 지표의 3/4을 뒤덮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 4?~A.D. 65?), 플리니(Pliny, 23?~79)와 같은 권위자들의 저서가 사용되었고, 또 결정적인 증거로 외경(外經) 에즈드라스서의 한 구절(6 : 42)이 인용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세계의 6/7은 육지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 단지 1/7 만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다고 적혀 있다.<sup>15)</sup> 또한 이 책에는 “아프리카와 인도에 똑같이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프리카는 인도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므로, 스페인과 인도 사이의 바다는 순풍이라면 며칠 안으로 항해할 수 있다”<sup>16)</sup>고 얘기한 세네카의 유명한 진술이 인용되어 있기도 하다.

다이어의 『세계의 상』이 콜럼부스 탐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콜럼부스 연구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콜럼부스가 이 책을 1차 항해전에 읽었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읽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콜럼부스가 이 책을 통해 1도의 길이

가 56·% 마일이라는 것<sup>17)</sup>과 바다는 어디나 항해 가능하다는 것, 아프리카(Uterior Spain)와 인도 사이의 바다는 좁기 때문에 며칠 동안의 항해로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과 지구의 6/7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sup>18)</sup> 등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콜럼부스는 이미 폴로의 책을 통해 대한(大汗)의 영토 가까이 씨팡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계의 상』의 기사에서 지구의 전체 면적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인도까지의 바다는 며칠이면 항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하더라도 인디즈나 대한(大汗)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세계의 상』을 통해 콜럼부스가 얻은 것은 구체적인 지리학적인 지식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동방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스카넬리(Paolo Toscanelli, 1397~1482)의 서한<sup>19)</sup>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토스카넬리가 보낸 두 통의 편지 중 첫 번째 편지는 토스카넬리가 마르틴(Fernan Martins) 신부를 통해 포르투갈의 아폰소 5세(Afonso V)에게 보낸 1474년 6월 25일자 편지의 사본이고, 두 번째 편지는 콜럼부스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토스카넬리가 콜럼부스에게 쓴 것으로 첫 번째 편지에 뒤이어 쓰여졌으며, 첫 번째 편지를 요약한 것이

15) Pauline Watts, Prophecy and Discovery ; On the Spritual Origin of Christopher Columbus's Enterprise of the Indie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0, 1985, p. 82 재인용..

16) Georges Nunn, op. cit., p. 659와 Watts, Ibid., p. 82 재인용.

17) 1도의 길이를 56·% 마일(실제로는 60 마일이다)로 계산한 것은 9세기 말경 이슬람의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인 Alfraganus이다. 콜럼부스는 이 계산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작게 생각했고, 또 아시아 대륙이 실제보다 동쪽으로 훨씬 더 도출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서양을 서쪽으로 항해하면 육로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아시아 대륙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Ferdinand Columbus, I *Historie del S. D. Fernando Colombo*(Venice, 1571), trans. by Benjamin Keen : *The Life of the Admiral Christopher Columbus by His son Ferdinand*(New Brunswick ; Rutgers Univ. Press, 1959), p. 16.

18) Nunn, op. cit., p. 654 참조.

19) 토스카넬리의 서한의 전문은 Christopher Columbus, trans. by Clements R. Markham : *The Journal of Christopher Columbus And Documents relating to the Voyages of John Cabot and Gaspar Corte Real*(N. Y. ; Lenox Hill Pub. and Dist. Co., 1971)(이하 The Journal로 약함), pp. 3~11와 Ferdinand Columbus, op. cit., pp. 19~23를 참조하라. 이하에서는 Markham의 영역본에 수록되어 있는 서한을 Toscanelli's Letter로 약하기로 한다.

다.<sup>20)</sup> 현존하는 토스카넬리의 서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콜럼부스 연구자들은 토스카넬리가 마아틴(Fernan Martins) 신부에게 라틴어 편지를 썼고, 그 서한을 입수한 콜럼부스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확신하면서 그의 탐험을 계획했고, 탐험에 대한 후원을 얻기 위해 스페인 궁정에 그 서한을 제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sup>21)</sup>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콜럼부스가 비록 토스카넬리와 직접적인 서신 교환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서한을 보았고 또 그 내용에 흥미를 느껴 자신의 탐험 계획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콜럼부스는 서한의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졌고, 그 내용을 어떻게 자신의 탐험 계획을 형성하고 또 후원을 얻는 데 이용하였을까? 서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료와 보석들로 가득찬 기름진 (아시아) 땅에 도달하려면 항로를 항상 서방으로 잡아야 하고, 미지의 (대서양) 서쪽 바다는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으며 향료와 후추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자이툰(Zaitun) 항구와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대한(大汗)이 살고 있는 카타이는 금과 은, 많은 보석과 향료가 풍부하여 찾아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씨팡고(Cipango)는 안틸리아(Antilia)에서부터 225 리이그 거리에 있는 섬이며, 황금과 귀금속이 풍부하여 사원들과 궁전들은 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sup>22)</sup>

이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다이이의 『세계의 상』의 기사를 종합하여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책은 당대까지 서구의 지리관을 가

장 잘 반영하고 있는 책으로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다. 위의 두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콜럼부스는 동시대인인 토스카넬리의 편지에서도 향료와 금과 은이 풍부한 카타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과 그곳으로 가려면 항로를 서쪽으로 잡으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탐험의 후원자를 찾는 데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3)</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럼부스는 많은 저서들을 탐독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는 아시아 대륙 가까운 곳에 씨팡고라는 황금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이이 추기경의 『세계의 상』에서는 대서양 서쪽 바다는 그리 넓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토스카넬리의 서한에서는 향료와 금은 보석들로 가득한 대한(大汗)의 영토인 카타이에 도달하려면 항로를 서방으로 잡아야 하며 서방의 바다는 그리 넓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탐험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2. 스페인 궁정과 콜럼부스의 제후

근세 초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은 ‘재정복’(reconquista)과 ‘해외팽창’이다. 중세 이후 수세기 동안이나 이교도인 무슬림의 지배를 받아왔던 이베리아 반도의 왕국들은 꾸준한 ‘재정복 전쟁’을 통해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슬람교도들을 몰아내고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재정복운동’과 ‘해외탐험’이라는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던 1476년경 콜럼부스 일가(一家)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포르투갈에 정착하고 있는 동안 콜럼부스는 아이슬랜드(Iceland)로의 해상활동(海商活動)

20) 훔볼트는 Afonso V에게 토스카넬리가 편지를 보낸 그 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Henri HARRISSE와 Henry VIGNAUD 등은 1480년이나 1481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21) Nowell, op. cit., p. 811.

22) Toscanelli's Letter, in *The Journal*, pp. 4~9.

23) Watts, op. cit., p. 81.

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콜럼부스는 대서양 서쪽에 아직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땅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sup>24)</sup> 대서양을 서쪽으로 횡단해 가더라도 아시아 대륙이나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썬트 브렌단(St. Brendan) 섬<sup>25)</sup>이나 안틸리아(Antillia) 섬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콜럼부스가 염두해 두고 있었던 대서양 탐험을 실천해 옮기려고 작정한 것은 아마도 1484년 경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1484년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에 대한 지원을 포르투갈의 주앙 2세(João II)에게 요청하지만, 주앙 2세는 이를 거부한다. 포르투갈로서는 엔리케 항해왕(Henrique; Henry the Navigator, 1394~1460)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즈음에는 아프리카를 회항하여 인도에 이르는 항로가 발견될 것이 기대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위험부담이 있는 대서양 탐험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485년 경 카스티야에 탐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1486년 5월에는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탐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한다.<sup>26)</sup> 이 시기에 페르난도 국왕과 이사벨 여왕은 무어인에 대한 국토수복 전쟁(reconquista)을 수행하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계획의 타당성과 그 가치에 대해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한다. 위원회는 천문, 지리, 철학의 전문가들과 해양 관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살라망카(Salamanca)에서 심의를 계속하였으나 이렇다 할 보고를 내지 못하고, 1490년 위원회는 콜럼부스의 계획을 각하(却下)하고 말았다.

1488년 포르투갈 궁정에 재차 후원을 요청을 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만, 바르톨로뮤 디아스(Bartholomeu Dias, 1450?~1500)가 동년 1월 희망봉에 도달하고 12월 귀항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르투갈 궁정의 후원을 얻는데 실패한다.

1489에 콜럼부스는 자신의 동생인 바르톨로뮤(Bartholomew Columbus)를 통해 영국의 헨리 7세와 프랑스의 샤를르 8세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 영국은 장미전쟁이 종결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프랑스도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못했던 시기였던 터라 모험성이 짙은 대서양 탐험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었으므로 탐험에 대한 후원을 얻지 못했다.

포르투갈 궁정의 후원을 얻는 데도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던 스페인 궁정의 후원마저 얻는데 실패한 콜럼부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여 아들 디에고(Diego)가 머물고 있는 팔로스 항 근처의 프란체스코파의 라비다(La Lábida) 수도원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 이 수도원의 후양 베레스(Juan Pérez) 수도사<sup>27)</sup>는 콜럼부스의 탐험계획을 적극 옹호해 준 인물이었다. 그의 소개로 콜럼부스는 마르틴 알론소 핀손(Martín Alonso Pinzón)을 알게 된다. 이때 베레스 신부는 레페(Lepe)의 수로안내인인 로드리게스(Sebastián Rodríguez)를 통해 이사벨 여왕에게 서한을 보내 탐험에 대한 지원을 재차 요청하고, 이번에는 토스카넬리의 서한을 탐험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한다. 1491년 4월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은 세비야를 떠나 그라나다 평원에 진지(Santa Fé)를 구축하고 무어인의 최후 보루인 그라나다 공략에 여념이 없었다. 그라나다 공략은 1491년 12월 30일에 무어인들이 항복문서에

24) 콜럼부스가 대서양 탐험을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콜럼부스가 대서양 항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대서양 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서인도 제도의 인디안들의 배를 만나게 된 것과 서인도제도에서 태풍을 피하고 귀환한 무명의 선원(unknown pilot)으로부터 서인도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ohn Larnar, op. cit., pp. 11~16를 참조하라.

25) 아일랜드의 수도사인 Brendan(484~578)이 찾아나섰다는 전설상의 섬.

26) 콜럼부스가 후원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Felipe Fernández-Armesto, *Ibid.*, p. xvii와 Salvador Madariaga, *Christopher Columbus*(1967), 유공희 역, 「신대륙의 기수」, 『세계의 인간상』(신구문화사, 1974), p. 40, Pierre Chaunu, trans. by K. Betram, *The European Expansion in the Later Middle Ages*(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9), p. 152를 참조하라.

27) 베레스 신부는 한때 이사벨 여왕의 告解神父였다.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완료되었다.

2차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콜럼부스의 탐험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1492년 1월 위원회는 콜럼부스의 계획을 다시 각하한다. 두 번째로 스페인으로부터 지원을 얻는 데 실패한 콜럼부스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그라나다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가 그라나다로부터 10 마일 정도 떨어진 피노스-뿌엔페(Pinos-Puente) 마을을 지날 때 여왕의 사절이 도착하여 여왕의 돌아오라는 명령을 전한다. 여왕의 마음을 바꾸도록 한 사람은 콜럼부스 계획에 우호적이었던 왕실 재정관(escribano de ración)인 가브리엘 산체스(Gabriel Sánchez)와 여왕의 측근인 산타렐(Luis de Sant-ángel)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스티야는 1486년 콜럼부스가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거부한 적이 있었다. 카스티야 궁정이 콜럼부스의 지원요청을 간단히 거부했던 이유는 당시 카스티야는 절대왕정을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었던데다가 그라나다 정복전쟁으로 왕실의 국고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고, 콜럼부스가 제시한 계획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491년 12월 그라나다 함락으로 재정복 전쟁이 완료되자 그의 계획이 갖는 이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콜럼부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해외팽창에서 포르투갈을 추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갈된 국고를 보충할 수도 있었다.<sup>28)</sup> 특히 열렬한 카톨릭 신자인 이사벨 여왕은 무슬림 국가에 대항하는 그리스도교 교인의 감정을 십자군 정신으로 구체화시키려고 했다. 탐험이 성공하면 스페인은 동양의 많은 국가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 투르크의 공격을 제지하고 나아가 역공도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카톨릭 국왕과 콜럼부스는 1492년 4월 17일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흔히 '산타 페(Santa Fé) 문서'로 알려진 이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콜럼부스에게 귀족(Don) 칭호를 수여한다. 둘째, 그가 앞으로 발견할 해양과 섬들의 대체독(Great Admiral)이 되고 그 식민지의 총독(Governor)과 부왕(副王, Viceroy)이 되며, 이 직위는 그의 자손들에게 영구히 상속된다. 셋째는 그곳에서 산출되거나 물물교환으로 얻은 모든 금과 은 및 귀금속의 1/10을 콜럼부스가 소유한다. 넷째, 상품이나 물품에 관련된 어떠한 소송도 제독인 콜럼부스가 관할한다. 다섯째, 콜럼부스는 앞으로 있게 될 탐험 비용의 1/8을 투자하던가, 상업상의 항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익의 1/8만 가진다.<sup>29)</sup> 이 산타 페(Santa Fé)의 계약은 카스티야·아라곤 연합왕국의 대내외적인 필요성과 콜럼부스의 개인적인 열망이 서로 결합됨으로써 체결 가능했던 것이며, 이로써 신대륙 탐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달성될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 III. 항해의 경과

#### 1. 1차 항해(1492년 8월 ~ 1493년 3월)

콜럼부스는 네 차례의 탐험을 감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1차 탐험에 대해서는 다른 탐험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져 있다.<sup>30)</sup> 그것은 항해일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항해일지를 중심으로 콜럼부스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어디였고, 왜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는지를 탐험의 경과와 함께 분석해 볼 것이다. 먼저 콜럼부스가 탐험의 목적지로 상정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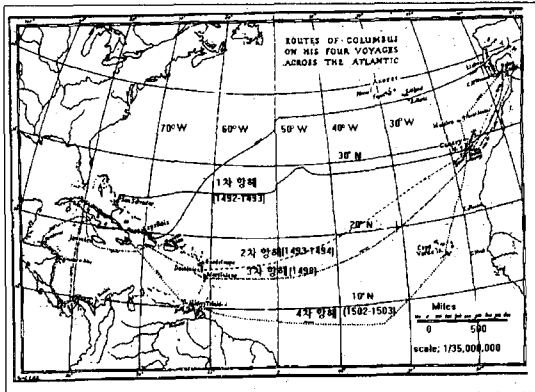
콜럼부스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1차 탐험에 나서게 된 것은 1492년 8월 3일이었다. 콜럼부스는 3 척의 작은 카라벨선<sup>31)</sup>과 약 90 명의 선원들과 함께 스페인 남해안의 팔로스(Palos) 항을 출항하여, 카나리아(Canaria)에 잠시 기항(寄港)한 뒤 대서양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곧장 항해하였다.

28) 최영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정책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 87~88 참조.

29) Contract between Sovereigns and Columbus dated 30th Apr. 1492, in *The Existing Autographs of Christopher Columbus*,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Annual Report*, 1895, ed. by William E. Curtis, pp. 494~499.

30) 콜럼부스의 대서양 항해도에 대해서는 <지도 1>을 참조하라.

콜럼부스는 10월 3일에 아직 생기가 있고 열매도 그대로 달려있는 많은 수초와 도요새 등을 목격하고 자신이 해도상<sup>32)</sup>에 표시된 육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sup>33)</sup>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늦게 도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속 항해하겠다”<sup>34)</sup>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나의 목표는 인디즈(Indies)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sup>35)</sup>이라고 적고 있어 탐험의 목적지가 인디즈였다는 사실을 뚜렷히 밝히고 있다. 10월 10일에는 장기간의 항해에 지친 선원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콜럼부스는 선원들에게 “앞으로 발견하게 될 땅으로부터 얻게 될 이익을 곧 분배받을 수 있을 것”<sup>36)</sup>이라고 무마하면서, “선원들이 아무리 불평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인디즈(Indies)로 가야만 하고, 그곳을 발견할 때까지 항해를 계속할 것”<sup>37)</sup>이라고 설득하였다.



자료 : Cecil Jane, Four Voyages of Columbus, p.x.

<지도 1> 콜럼부스의 대서양 항해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럼부스가 탐험의 목적지로 삼았던 곳은 1차적으로는 인디즈(Indies)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인디즈(Indies)라는 지명을 당시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15세기 교양인들에게는 갠지즈(Ganges) 강 너머 아시아의 모든 땅들이 인디즈(Indies)라는 한마디로 이해되고 있었다.<sup>38)</sup> 그러므로 콜럼부스가 탐험의 목적지로 상정하고 있었던 인디즈는 당시까지 유럽인들에게 막연하게 알려져 왔던 안틸리아(Antillia), 카타이, 씨팡고 등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콜럼부스의 지리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이곳들은 모두 대서양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콜럼부스는 대서양을 서쪽으로 횡단해 가더라도 이들 중 어느 곳엔가는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콜럼부스는 카나리아 제도를 출항하고 나서는 계속 서향(西向)(270°) 침로를 고수하였다. 10월 6일 밤 핀타호 선장 알론소 핀손(Martin Alonso Pinzón)이 남서 침로(235°)로 항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여 왔으나, 콜럼부스는 그가 씨팡고로 가려고 한다는 의도를 간파하고 “대륙으로 먼저 가고 나서 섬(Cipango)으로는 나중에 가는 것이 좋겠다”<sup>39)</sup>고 말하면서 그의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목적지는 씨팡고 보다는 대륙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콜럼부스는 먼저 인디즈 즉, 아시아 대륙에 도착하고 나서 씨팡고로 가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 국왕과 체결한 계약서 상에 나타난 탐험의 공식적인 목적은

31) 세 척의 배는 산타 마리아(Santa Maria), 니나(Niña), 핀타(Pinta) 호였다. 산타 마리아 호는 후앙 데 라 코사(Juan de la Cosa)가 선주대리인(Master)으로 승선하고 있었으며, 선장은 콜럼부스였다. 핀타 호의 선주는 고메즈 라스코(Gomez Rascon)와 크리스토팔 핀타로(Cristobal Quintaro)였으며, 선장은 마르틴 알론소 핀손(Martin Alonso Pinzón)이었고, 니나호는 니뇨 형제(Pero Alonso Niño, Juan Niño)의 공동소유였으며, 빈센페 야아네스 핀손(Vincente Yañez Pinzón)이 조선했다.

32) 콜럼부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도에 대해서는 <지도 2>와 <지도 3>을 참조하라.

33) 10월 3일의 船位는 대략 토스카넬리 지도와 베하임의 지도에 표시된 St. Brendan 섬과 동일한 경도상에 있었다.

34) The Journal, p. 32.

35) The Journal, p. 32.

36) The Journal, pp. 34~35.

37) The Journal, pp. 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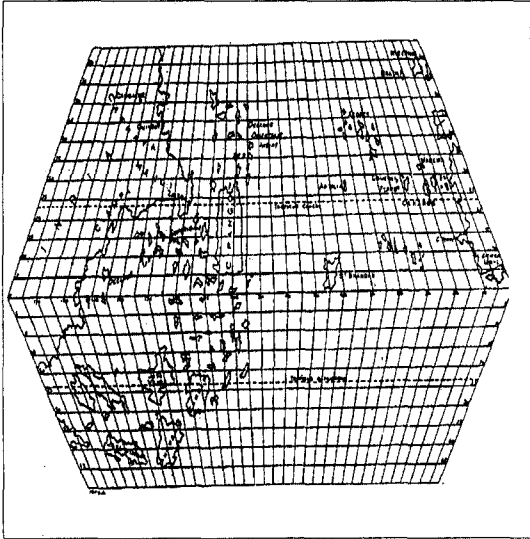
38) Taylor, Idée Fixe ; The Mind of Christopher Columbus,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XI, Aug., 1931, p. 289.

39) The Journal, p. 33.



“신의 도움으로, 대양상에 있는 섬들(islands)과 본토(mainland)를 발견하고 정복하기 위한 것”<sup>40)</sup>이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콜럼부스가 상정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목적지는 아시아 대륙과 씨팡고 섬이었다.

(Fernandina), 이사벨라(Isabella) 섬에 기항한 뒤 10월 28일 그가 후하나(Juana)라고 명명한, 쿠바(Cuba)에 상륙하였다. 이때까지 콜럼부스는 자신이 씨팡고 부근에 도착하였다고 생각하였다. 11월 21일에는 알론소 핀손이 조선하고 있는 핀타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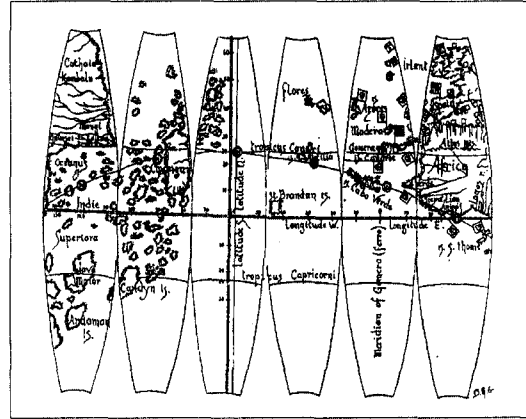
자료 : Clements Markham, The Journal, p. 2.

<지도 2> 콜럼부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스카넬리의 지도

콜럼부스의 지리학적 지식에 의하면, 아시아는 유럽에 매우 가까이 있는 대륙이었으며, 씨팡고는 아시아 대륙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황금 향이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횡단함으로써 유럽에 가까운 인디즈(Indies)에 도달한 뒤 씨팡고로 가려고 모험 항해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10월 10일 항해에 지친 선원들의 반란을 잘 무마한 콜럼부스의 탐험대는 10월 12일(금요일<sup>41)</sup>) 아침에 바하마(Bahama) 군도(群島) 중 하나인 산 살바도르(San Salvador)를 초인(初認, made-out)했고, 거기에 상륙하여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소유하였다.

이후 콜럼부스 탐험대는 산타 마리아 데 라 콘셉시온(Santa Maria de la Concepcion), 페르난디나



자료 : Samuel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p. 66~67.

<지도 3> Behaim의 세계지도

무리에서 이탈한다. 이후 콜럼부스는 자신이 에스파놀라(Española)라고 부른 하이티(Hayti)로 항해한 12월 5일까지 쿠바의 북동 해안을 탐사하면서 머물렀다. 에스파놀라 섬을 일주 탐사하면서 그는 구아카나가리(Guacanagari) 마을에서 원주민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 섬에서 그는 25일 새벽에 좌초로 산타 마리아(Santa Maria) 호를 잃었다. 이 때문에 탐험대에는 니나호 한 척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되어 콜럼부스는 구아카나가리(Guacanagari) 부근에 요새를 건설하고 선원들을 잔류시킬 것을 결심한다. 그렇게 해서 건설된 요새가 나비다드(Navidad) 요새이다. 1493년 1월 6일 핀타호가 재합류한다. 그리하여 콜럼부스는 잔류하기를 원하는 선원들을 나비다드 요새에 충분한 식량과 비품을 주어 남겨 놓고, 1월 16일 자신은 니나(Niña) 호에 승선하고 핀타호와 함께 스페인을 향

40) Contract between Sovereigns and Columbus, in op. cit., p. 497.

41)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10월 21일이다.

해 출항한다. 2월 18일 아조레스(Azores)에 도달했고, 3월 4일에 리스본에 도착하여, 이틀날 포르투갈의 주앙 2세의 사절로 온 바르톨로뮤 디아즈(Bartolomeu Dias)의 방문을 받는다. 그는 콜럼부스에게 하선하여 항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콜럼부스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자신은 카스티야 왕의 승인서와 면허장(commision)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강제 구인을 면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3월 9일 포르투갈의 주앙 2세를 알현하게 된다. 주앙 2세의 호의로 선용품을 공급받고 난 뒤, 마침내 3월 15일 항해에 나선지 225일 만에 팔로스 항으로 귀항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 2. 2차 항해(1493년 9월 ~ 1496년 6월)

1차 탐험으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콜럼부스에게는 2차 탐험의 목적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것은 새로이 발견한 지역에서 황금과 기타 경제적인 이득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2차 탐험 직전에 카톨릭 국왕 앞으로 보낸 계획서에서 콜럼부스는 탐험의 목적과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콜럼부스는 탐험의 목적이 우선적으로 '식민사업(peopling and settling)'이라고 명기하고 있다.<sup>42)</sup> 이를 위해 약 2,000 여명의 스페인인들을 에스파놀라에 정착시켜 3~4 개의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이후 2 세기에 걸친 유럽인들의 해외 팽창의 역사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식민사업이었다.<sup>43)</sup> 콜럼부스의 1차 탐험은 단순한 탐험이었지만, 2차 탐험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sup>44)</sup>

콜럼부스는 1차 탐험에서 귀환한 직후 곧바로 2차 탐험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17 척의 배와 1천 2백 여명의 대원을 이끌고 1493년 9월 25일 카디스(Cadiz) 항을 출항하였다. 이번에는 1차 탐험 때

와는 달리 남서쪽으로 항로를 잡았다.<sup>45)</sup> 도미니카(Dominica)에 처음으로 도착한 탐험대는 마리갈란테(Mariegalante), 몬세라테(Monserrate), 성 마르틴(St. Martin),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 섬을 경유하여 1493년 11월 28일 1차 탐험 때 일행 중 일부를 잔류시켜 놓은 나비따드(La Navidad) 마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그러나 나비따드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잔류자들도 모두 살해당하였다.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1차 탐험 때 아직 그 정체가 불확실한 영토를 발견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올리지 못한 데 대해 이미 궁정에서는 온갖 비난과 의혹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콜럼부스로서는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혹평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의 눈앞에 황금이라는 증거품을 보여주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sup>46)</sup> 그래서 콜럼부스는 나비따드 잔류민들이 살해당한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였음에도 그 전말을 밝히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일 보다는 그들이 수집해 놓았을 금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사태를 수습한 콜럼부스는 새로운 식민지(植民市)로 '이사벨라'(Isabella)를 건설하게 했다. 콜럼부스 일행은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사벨라 마을의 건설을 지휘하는 한편, 황금과 향료 및 기타 상업적인 가치가 있을만한 산물들에 대한 탐사 작업에 전념하였다. 1494년 1월 6일 콜럼부스는 원주민들이 금이 많이 있다고 얘기한 니티(Niti)와 씨바오(Cibao) 방면으로 오헤다(Alonso de Hojeda)와 고르발란(Ginés de Gorbalán)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약간의 금 조각을 발견하고 각각 1월 20일과 21일 이사벨라로 귀환하였다.

신도시 이사벨라의 건설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자 콜럼부스는 1494년 3월 12일 동생인 디에고(Diego Columbus)에게 이사벨라를 맡기고, 본격적인 탐사 작업에 나섰다. 콜럼부스는 오헤다를 대동

42) Columbus, Letter to the Sovereigns dated 1493, in *op. cit.*, ed. by William E. Curtis, p. 452.

43) Salvador de Madariaga, *op. cit.*, p. 92.

44) Daniel Boorstin, *The Discoverers* (Random House, Inc., 1983), 이성범 譯, 『발견자들 I』 (범양사출판부, 1993), p. 373.

45) 2차 항해의 항적에 대해서는 <지도 1>을 참조하라.

46) Columbus, Letter to the Sovereigns dated 18th Oct. 1498, in *op. cit.*, ed. by Major, p. 107 참조.

하고 에스파놀라 섬 내부로 깊숙히 들어갔는데, 바오 강(Rio Bao)과 야니코(Rio Janico) 강 하류 합류 지점에서 사금(砂金)이 발견되었다. 콜럼부스는 이곳에 산토 토마스(Santo Tomas)라는 마을을 건설하여 50 여명의 인원을 잔류시켜 원주민들을 동원해 사금을 채취하게 하고, 이곳을 마르가리트(Mosén Pedro Margarit)에게 맡기고 자신은 3월 29일에 이사벨라로 귀환하였다. 이사벨라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사망하는 등 처참한 상황이었다. 여기다가 산토 토마스도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등 정세가 좋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쿠바가 섬인지 아니면 대륙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월 24일 콜럼부스는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에스파놀라 섬을 출항하였다. 콜럼부스 일행은 쿠바의 남해안을 따라 탐사를 계속하여 멕시코와 유카탄(Yucatan) 반도를 발견할 기회를 맞았으나 기상 악화로 항로를 이사벨라 쪽으로 변경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콜럼부스는 쿠바가 섬이 아니라 대륙(continent)이라는 것을 전 선원들에게 선서하게 하였다. 선원들이 선서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355 리이그 거리를 항해한 결과 쿠바는 그들이 여태까지 본 섬들보다 더욱 크므로, 그들이 볼 때 이 해안은 분명히 아시아 대륙의 일부임에 틀림없고 만약 조금만 멀리 항해했다면 문명인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sup>47)</sup> 이로써 본토 발견의 대업을 달성했다고 생각한 콜럼부스는 병으로 앓아 눕는 처지가 되어 더 이상 탐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세 척의 배는 쿠바 서해안과 자마िका 남해안을 일주하여 1494년 9월 29일 이사벨라로 귀환하였다.

한편, 심각했던 식량 부족 문제는 1494년 2월 스페인으로 파견되었던 토레스(Antonio de Torres)가 10월 이사벨라로 귀환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토레스는 포르투갈과의 영토 협상에 대비

하기 위해 식민지의 통치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콜럼부스 자신은 즉시 귀국하라는 국왕의 명령도 전하였다. 그러나 콜럼부스는 항해로 인한 병환과 경제적 이득이 될만한 이렇다할 것들을 수집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자 에스파놀라 섬의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된 것처럼 보였으나, 1494년 겨울에는 이전부터 불온하였던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정적인 전투로 비화되었다. 이 전투에서 1,500 여명의 원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이들 가운데 500여명을 1495년 2월말 스페인으로 귀환하는 토레스(Torres) 편으로 카스티야로 보냈다.

원주민과의 전투는 10개월 이상을 끌었으며 1496년 초까지는 에스파놀라 섬에 거주하는 모든 부족을 복속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의 상황과 콜럼부스의 실정(失政)에 대한 마르가리트(Margarit)와 부일(Buil) 신부의 보고는 국왕의 콜럼부스에 대한 신용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였다.<sup>48)</sup> 그리하여 식민지 현황을 시찰할 목적으로 1495년 8월 5일 아구아도(Juan Aguado)가 파견되기에 이르렀는데, 그는 1495년 10월 이사벨라에 도착하였다. 그의 임무는 총독으로서 콜럼부스가 식민지에서 행한 일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신임장에는 그가 “스페인 국왕의 대표로 파견된 자로서, 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신임하고 신뢰하여야 한다.”<sup>49)</sup>고 명시되어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식민지에 대한 통치권이 아구아도에게 일임된 것은 아니었으나, 식민지인들은 콜럼부스와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5 개월여 동안이나 논쟁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아구아도(Aguado)는 식민지 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가고 있었다. 아구아도의 보고서는 “이사벨라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거나, 불만에 가득차 있으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고, 몸이 성한 사람들은 섬 전역에 걸쳐 금을 채집하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47) Daniel Boorstin, *op. cit.*, p. 374 재인용.

48) Samuel E. Morison, *Christopher Columbus ; Mariner*, p. 125 참조.

49) Salvador de Madariaga, *op. cit.*, p. 105 재인용.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sup>50)</sup>고 기록하고 있다. 콜럼부스로서는 아구아도의 보고서가 국왕에게 전달되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가 스페인으로 귀환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태풍이 내습하여 이사벨라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사벨라를 재건하고 귀환할 배를 준비한 뒤, 콜럼부스는 이사벨라의 통치를 바르톨로뮤에게 위임하고 두 척의 배를 이끌고 1496년 3월 10일 귀항길에 올랐다. 그러나 콜럼부스는 한 달여 동안 서인도 제도 근방에 머물러 있다가 4월 20일에야 구아델루페(Guadeloupe)를 출항하여 스페인으로 향하였다.

콜럼부스는 1496년 6월 11일 카디스로 귀항했는데, 이번에는 1차 탐험 때와는 달리 반응이 냉담하였다. 막대한 투자에 대한 상업적인 성과가 너무나 보잘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2차 탐험에서 이룩한 성과는 신대륙에 최초의 이민도시인 이사벨라와 산토 토마스 마을을 건설한 것과 포로로 잡은 원주민들을 스페인으로 보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3. 3차 항해(1498년 5월 ~ 1500년 9월)

콜럼부스는 두 차례에 걸친 탐험으로 에스파냐와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 자마이카(Jamaica), 쿠바(Cuba) 등을 발견했고, 식민 도시로 이사벨라(Isabella)와 산토 토마스(Santo Tomas)를 건설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기대했던 금광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대한(大汗)이 다스리는 중국 본토(Cathay)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콜럼부스는 3차 탐험 때부터는 자기의 탐험이 단순히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성념(聖念, holy spirit)에 의해 고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sup>51)</sup> 궁정 안에서는 콜럼부스를 비난하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카톨릭 국왕은 그를

여전히 신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497년 4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카톨릭 국왕은 콜럼부스의 권리와 직위 및 특권을 재확인하고, 궁정의 비용으로 에스파냐에 정착시킬 300 여명의 지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카톨릭 국왕은 여론을 의식하여 곧 바로 출항할 것을 명하지는 않았다. 콜럼부스가 출항을 허가받은 것은 포르투갈에서 1497년 7월 8일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출항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난 뒤였다.

콜럼부스는 1498년 5월 30일 5 척의 배를 이끌고 상루카르(Sanlucar) 항에서 출항하였다. 그로서는 세간의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금과 대륙을 발견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이번 항로는 ‘프레스터 존’(Prestor John)의 대륙과 더 많은 황금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전 항로보다 더 남쪽으로 향해하기로 결정하였다.<sup>52)</sup> 그가 남쪽 항로를 택한 이유는 포르투갈인들이 기네아(Guinea)산 금을 발견한 지역인 시에라 레온(Sierra Leone)과 동위도인 북위 10도 선을 따라 항해함으로써 황금이 다량 채굴되는 위도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3)</sup> 5 척으로 구성된 탐험대는 고메라(La Gomera) 섬에서 이진으로 나뉘어 세 척의 배는 카르바알(Carbajal)의 통솔 하에 곧장 에스파냐로 향하게 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두 척의 배는 베르데(Verde) 섬을 경유하여 이전 항로 보다 훨씬 남쪽 항로로 항해하여 7월 31일 서인도 제도의 트리니다드(Trinidad) 섬에 도착하였다. 3차 탐험에서 콜럼부스는 베네주엘라의 아라야(Araya) 반도의 한 지점인 에스쿠도 블랑코(Escudo Blanco)에 도달하였으나 여기서 항로를 북쪽으로 바꾸어 남미 본토를 발견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콜럼부스 일행은 8월 15일 마가리타(Margarita) 섬을 발견하고 바로 에스파냐로 향하였다.

에스파냐에는 이사벨라(Isabella)와 산토 토마

50) Samuel E.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 494 재인용.

51) Columbus, Letter to the Sovereigns dated 18th Oct. 1498, in *op. cit.*, ed. by Major, pp. 104~108 참조.

52) 3차 항해의 항적에 대해서는 <지도 1>을 참조하라.

53) Columbus, Letter to the Sovereigns dated 27th Jun. 1500, in *op. cit.*, ed. by Major, p. 113.

스(Santo Tomas)라는 식민지가 건설되어 있었으나, 바르톨로뮤 콜럼부스(Bartholomew Columbus)는 이사벨라를 포기하고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라는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였다. 콜럼부스 일행이 산토 도밍고에 도착했을 당시 에스파놀라는 콜럼부스가 사법(司法) 담당자(chief Justice)로 임명했던 롤단(Francisco Roldan) 일당의 반란에 직면하고 있었다. 롤단은 부하 70 여명과 함께 마구아나(Maguana) 부족과 연합하여 콜럼부스 형제의 일방적이고 융통성 없는 통치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한편, 카르바알(Carbajal)이 인솔한 세 척의 배가 롤단이 지배하고 있던 사라구아(Xaragua) 지역으로 들어감으로써 롤단 일당의 세력은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거의 일 년여를 끈 롤단 일당의 반란은 콜럼부스가 롤단을 다시 그의 지위로 복귀시키고 그에 대한 모든 죄목을 사면하고, 그의 휘하의 사람들 중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채집한 금과 노예를 동반하고 스페인으로 자유로이 귀환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마무리 지어졌다.

롤단 일당의 반란을 겪고 난 콜럼부스는 식민지의 통치 방식을 전환하였다. 그것은 스페인 정착민들에게는 일정한 경작지를 분배하는 동시에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노예로 할당하는 방식이었다.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가혹한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영하였고, 스페인 정착민들도 이 방식이 보다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할당받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금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1500년 경에는 콜럼부스는 식민지를 일종의 공포정치를 통하여 통치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통치 방식은 향후 신대륙 식민지 지배의 한 전형이 되었다.<sup>54)</sup>

궁정에서 콜럼부스에 대한 평가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었다. 서인도 제도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탐험에 나설 때 약속받은 급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콜럼부스를 비난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스페인 국왕은 1499년 3월 21일 식민지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보바디아야(Francisco de Bobadilla)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에게는 콜럼부스에 대한 반란 사건을 취조하고 반란에 참여한 자들을 처벌할 권한이 주어졌다. 1499년 5월 21일 스페인 국왕은 보바디아야를 콜럼부스를 대신하는 에스파놀라 총독(Governor)으로 임명하였다. 이리하여 보바디아야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스페인으로 귀환시킬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5월 26일에 보바디아야에게 신임장을 발부하였으나, 양 국왕은 콜럼부스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 보바디아야를 에스파놀라로 파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이러는 동안 콜럼부스가 에스파놀라 섬을 제노아인에게 팔아넘기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sup>55)</sup> 이러한 상황은 스페인 국왕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콜럼부스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 마침내 양 국왕이 신임 총독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보바디아야는 1500년 8월 23일 산토 도밍고에 도착하였다.

보바디아야가 산토 도밍고에 도착할 당시 콜럼부스는 베가(La Vega)에, 바르톨로뮤는 사라구아(Xaragua)에 머물고 있었고, 디에고가 산토 도밍고의 통치를 담당하고 있었다. 산토 도밍고에 도착한 신임 총독 보바디아야는 산토 도밍고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디에고 콜럼부스(Diego Columbus)를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뒤이어 보바디아야는 1500년 9월 15일 자신이 신임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콜럼부스에게 정식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콜럼부스는 자신은 양 국왕과 맺은 계약에 의해 총독인 것이며, 양 국왕은 아직 자기에게서 총독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바디아야는 단호한 조치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콜럼부스를 체포하여 감금하고, 뒤늦게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에 도착한 바르톨로뮤(Bartholomew Columbus)도 체포하였다. 이로써 콜럼부스 삼 형제에 의한 에스파놀라 식민지 통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콜럼부스 삼 형제는 1500년 10월 초 에스파놀라를 출발하여 10월 하순에 카디스 항에 도착하였

54) Salvador de Madariaga, *op. cit.*, p. 116.

55) Salvador de Madariaga, *Ibid.*, p. 121 참조.

다. 이로써 콜럼부스의 3차 탐험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 총독의 지위는 박탈당했고, 그동안 애써 모아놓은 전 재산은 몰수 당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슬에 묶여 압송되는 치욕스런 경험을 체험한 콜럼부스는 이후 종교적인 신비주의로 기울게 된다.<sup>56)</sup> 이러한 종교적인 신비주의는 자기가 발견한 서인도 제도가 성서에 기록된 지상 낙원(earthly paradise)이라는 확신으로까지 진전되었다.<sup>57)</sup>

이처럼 자신이 호언하던 금이나 향료 등 상업적인 이익을 거두지 못하여 세간 사람들로부터 '모기 제독'(Admiral of the Mosquito)이라는 비난을 당하고 총독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되는 등 갖은 고통을 겪은 콜럼부스는 점차 종교 속에서 위안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 4. 4차 항해(1502년 5월~1504년 11월)

1500년 10월말 콜럼부스가 죄인의 몸으로 체포되어 카디스 항에 도착할 당시 스페인 국왕은 그라나다(Granada)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는 나폴리 문제를 프랑스의 루이 7세(Louis XII)와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콜럼부스 형제는 사슬에 묶인 채로 세빌라의 쿠에바스(Las Cuevas) 수도원으로 압송되어 국왕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페인 국왕은 1500년 11월 11일 프랑스와 그라나다 비밀 조약으로 나폴리를 양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다. 카톨릭 국왕은 콜럼부스가 죄인으로서 체포되어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콜럼부스 형제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입궐(入闕)할 수 있도록 2천 두카트(Ducat)의 돈을 하사하였다. 콜럼부스가 스페인 국왕을 알현하기 위해 그라나다에 도착한 것은 1500년 12월 17일 이었다. 콜럼부스는 보바디아야 에스파놀라

섬에 있는 자신과 형제들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몰수하였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바디아야를 처벌해 줄 것과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지위와 특권, 권리 등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sup>58)</sup> 스페인 국왕은 그의 형제들을 호의로 맞아주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할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바디아야가 총독으로서 콜럼부스 형제의 재산을 몰수한 것은 정당하며, 몰수한 그 재산은 그가 차지해도 좋다는 것과 콜럼부스가 이주민들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급료는 약속대로 지불하고, 그 나머지의 10분의 9는 궁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10분의 1만이 콜럼부스 형제의 몫이 된다고 결정하였다.<sup>59)</sup> 그 사이 보바디아야가 식민지를 자의적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이 전해져 1501년 9월 3일 오반도(Nicolas de Ovando)가 새로운 식민지 총독으로 임명되어 1502년 2월 13일 에스파놀라로 파견되었다.

식민지에서 모은 전 재산을 압수당하고, 총독의 지위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두 형제 모두 사슬에 묶여 압송당한 굴욕적인 경험을 체험한 콜럼부스는 자신의 탐험과 신대륙 '발견'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신의 계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자서전을 쓰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콜럼부스는 자서전으로 『예언의 서』(*El Libro de las Profecias*)를 집필하려고 하였으나, 완성하지는 못하였다.<sup>60)</sup>

그 사이 콜럼부스는 새로운 탐험을 계획하면서 국왕에게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1502년 2월 6일자 편지에는 자신의 항해에 대한 경험과 능력 등을 자신하면서 새로운 탐험을 지원해 줄 것을 국왕에게 요청하고 있다.<sup>61)</sup> 콜럼부스의 인내심있는 요청에 스페인 국왕은 1502년 3월 14일 그의 4차 탐험을 승인하고 탐험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10만 페소(peso)의 금화를 하사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다. 에스파놀라 섬에는 결코

56) Columbus, Letter to the nurse of Price John dated end of 1500, in *op. cit.*, ed. by R.H. Major, *passim*.

57) Columbus, Letter to the Sovereigns dated 18th Oct. 1498, in *Ibid.*, pp. 135~137.

58) Columbus, *Ibid.*, pp. 162~163 참조.

59) Salvador de Madariaga, *op. cit.*, p. 127 참조.

60) 이 『豫言의 書』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Pauline Watts, *op. cit.*, pp. 73~102를 참조하라.

61) Columbus, Letter to the Sovereigns dated 6th Feb. 1502, in *op. cit.*, ed. by W.E. Curtis, pp. 457~461 참조.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콜럼부스는 탐사 작업에 적합한 선박 4 척을 구입하여 1502년 5월 11일 카디스(Cadiz) 항을 출항하였다. 이번 탐험의 주목적은 쿠바와 3차 탐험 때 발견한 남미 본토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수로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콜럼부스는 이 수로를 발견하기만 하면 인도양으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인도로 출발한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에게 전하는 서한까지 지참하였다.

4차 탐험의 항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2차 탐험 때의 항로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sup>62)</sup> 기상 조건이 양호하여 대서양 횡단 22일만인 6월 16일 도미니카(Dominica) 섬 남쪽의 마르티니크(Martinique) 섬에 도착하였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이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태풍이 내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콜럼부스는, 비록 국왕의 명에 의해 에스파놀라에 입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태풍을 피하기 위해 산토 도밍고에 입항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새로 부임한 오반도(Ovando) 총독에게 요청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기상은 그의 예견대로 악화되어 콜럼부스의 탐험대는 6월 29일에는 에스파놀라 부근까지 떠밀렸고, 6월 30일에는 마침내 태풍이 내습하여 산토 도밍고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콜럼부스 탐험대는 재각각 흩어져 쿠바 남해안까지 표류하였다. 태풍을 피하고 난 탐험대는 아주아(Puerto Viejo de Azua)에서 재집결하여 10여일 정도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항해에 나서 1502년 7월에서 10월까지 온두라스(Honduras), 니카라구아(Nicaragua), 코스타 리카(Costa Rica) 연안을 탐사하면서 인도양으로 통하는 해로를 발견하는 작업에 전념하였다. 1502년 10월 말에는 파나마의 베라구아(Veragua) 부근까지 탐사하여 원주민들로부터 금을 수집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원주민들로부터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암바(Ciamba)와 씨구아레(Ciguare) 지방에 금과 향료 등이 풍부하게

있다는 정보도 듣게 되었는데, 콜럼부스는 이 씨구아레(Ciguare)를 갠지즈 강 근처에 있는 까띠가라(Cattigara)와 동일시 하였다.<sup>63)</sup> 콜럼부스는 이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파나마(Panama) 동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11월 2일 푸에르토 벨로(Puerto Bel-lo)를 거쳐 11월 26일에는 레트레베테(Retrevete)까지 이르렀으나 역조와 악천후, 장기간의 항해로 인한 선원들의 사기 저하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였다.<sup>64)</sup>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콜럼부스는 결국 회항을 결심하여 1503년 1월 6일 악천후 속에서 황금이 발견되었던 베이라구아 부근의 벨렌 강(Rio Belén)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콜럼부스는 파나마 지협(地峽)을 발견하여 탐험의 목적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벨렌 강 하구에 도착했지만, 이튿날부터 폭풍우가 몰아쳐 2월 6일까지 계속되었다. 폭풍우로 항해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형편이었고 1월 말이 되자 강 입구는 폐쇄되어 오도 가도 못할 형편이 되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콜럼부스는 신의 목소리(voice of God)를 다시 한 번 듣게 된다.<sup>65)</sup>

콜럼부스는 이곳에 마을을 세워 바르톨로뮤에게 맡겨 금광을 찾아보게 하고, 자신은 스페인으로 귀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세워진 마을이 산타 마리아 데 벨렌(Santa Maria de Belén)이었다. 이 마을은 남미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식민 도시였다. 콜럼부스는 이곳에서 4월 16일까지 머물러 있다가 20 여명의 인원을 남겨놓고, 스페인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식량을 공급하고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산토 도밍고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에 겪은 악천후로 배는 파선 상태였고, 그나마 좁조개들이 선저를 파먹어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결국 두 척의 배로는 더 이상의 항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콜럼부스는 6월 25일 자마리카로 들어가서 피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콜럼부스를 포함한

62) 4차 항해의 항적에 대해서는 <지도 1>을 참조하라.

63) Columbus, Letter to the Sovereigns dated 7th Jul. 1503, in *op. cit.*, ed. by Major, pp. 174~176 참조.

64) 당시의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Columbus, *Ibid.*, pp. 178~179 참조.

65) Columbus, *Ibid.*, pp. 183~186 참조.

116 명의 탐험대는 이곳에서 거의 일년여 동안 고립되게 되었다. 당시 이들이 자마이카에서 겪은 어려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다.<sup>66)</sup> 그러나 디에고 멘데스의 죽음을 무릅쓴 행동으로 고립된지 일년여 만인 1504년 6월 29일 멘데스가 임대한 배에 승선하여 자마이카를 벗어날 수 있었다. 콜럼부스 일행은 산토 도밍고에서 휴식을 취한 뒤 출항하여 1504년 11월 7일 산루카르(Sanlucar) 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2년 만에 걸친 콜럼부스의 4차 탐험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콜럼부스가 국왕으로부터 어렵게 허가받은 4차 탐험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애당초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인도양으로의 수로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베라구아(Veragua)에서 발견한 금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룩한 것이 있다면 파나마의 베라구아 근처에 벨렌(Santa Maria de Belén)이라는 남미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한 정도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럼부스는 12년에 걸쳐 총 네 차례의 탐험을 감행하였으며, 탐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탐험의 목적을 점차 종교적인 것으로 정당화시켜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콜럼부스의 1차 탐험은 단순하게 인디즈나 씨팡고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지만, 서인도 제도에 도달하여 자신이 아시아 대륙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금광과 향료, 기타 경제적인 이익이 될만한 자연산물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탐사를 계속하였다. 2차 탐험의 목표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것은 새로이 발견된 서인도 제도에 사람들을 이주시켜 금광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서인도 제도에서 발견된 것은 경제성이 없는 사금에 지나지 않았다. 궁정 내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게 되자 콜럼부스는 3차 탐험 때부터는 자신의 탐험에 선교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3차 탐험 때 죄인의 몸으로

압송된 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총독의 지위도 박탈당하고, 국왕과 맺은 계약으로 보장받은 식민지에서 산출되는 수입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콜럼부스는 말년에는 더욱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되었다.<sup>67)</sup> 이처럼 콜럼부스가 자신의 탐험을 선교적 동기로 정당화하게 된 것은 불행했던 그의 인생 말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었다.<sup>68)</sup> 그러므로 그가 대서양 탐험을 계획하고 감행하게 된 것이,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지를 회복시키고 이교도를 개종시키려는 선교적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sup>69)</sup> 아직 종교적 열정이 완전히 퇴색하지 않은 중세 말기에 서인도 제도의 몇몇 섬들을 발견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할 상업적인 이익을 올리지 못한 콜럼부스가 자신은 신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자신은 신이 계시해 준 신성한 목적을 완수하도록 '선택받은 도구'(chosen vessel)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겠다.<sup>70)</sup>

그렇다면 콜럼부스가 당시로서는 무모한 대양 항해라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금과 향료 등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아시아 대륙이나 인디즈로 가려고 했던 참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콜럼부스로서는 탐험에 소요된 경비를 벌충해야만 했고, 탐험에 동참한 선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했다. 게다가 탐험을 후원해 준 스페인 국왕에게도 투자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올려야만 했다. 가난한 이방인인 콜럼부스로서는 새로운 영토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막대한 이익을 획득함으로써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귀족(Don)이자 대양의 제독(Admiral), 총독(Governor)이자 식민지의 부왕(Viceroy)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71)</sup> 그렇기 때문에 콜럼부

66) 이들이 자마이카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탐험에 동참했던 멘데스(Diego Mendez)의 유언장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Will of Diego Mendez, in *op. cit.*, ed. by Major, pp. 204~230 참조.

67) Cecil Jane, *op. cit.*, p. liii.

68) Watts, *op. cit.*, p. 80 and E.G.R. Taylor, *op. cit.*, pp. 296~300 참조.

69) John Lerner, *op. cit.*, p. 22.

70) Cecil Jane, *op. cit.*, p. xlii.



스는 황금에 대해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sup>72)</sup>

그러나 당시 탐험에 동참했던 많은 선원들과 탐험을 후원해 준 스페인 궁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해석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콜럼부스의 대서양 탐험에 대한 충분히 만족할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은 한 개인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structure)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을 상기한다면, 콜럼부스 탐험대로 하여금 귀금속과 향료 등을 찾아 모험 항해에 나서도록 만든 추동인(推動力)은 중세 말의 ‘침체된 경기’와 ‘재정복’이라는 이베리아 반도의 상황이 상호 접목된 시대적인 구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대서양 항해의 역사적 의의

##### 1. 항해사적 의의

콜럼부스는 항해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의 발견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차(磁差)를 발견한 것이다. 1차 항해 때인 1492년 9월 13일자 일지에 콜럼부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73)</sup>

“금일 하루 종일 서향(西向) 침로 유지. 33 리이그(league)를 항해했으나, 3~4 리이그 적게 기산(起算). 역조. 초저녁에 자침(磁針)이 북서쪽으로 반점 이동. 아침에 다시 북서쪽으로 조금 더 이동.”<sup>74)</sup>

이로부터 4일 뒤인 9월 17일자 기사에도 자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선인(pilot)들이 북극성을 관찰하여 자침이 정북에서 서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선원들은 매우 놀라워했고 낙심했으나,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제독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 북극성을 여명에 다시 관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sup>75)</sup>

이렇게 자침이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 선원들은 불안해 하였다.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콜럼부스는 불안에 휩싸인 선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침이 이동하는 것은 자침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항성(恒星)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sup>76)</sup>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북극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적위(赤緯)는 1년에 약 0'3, 항성시각(恒星時角)은 약 25'0씩 변화하고 있다.<sup>77)</sup> 물론 콜럼부스의 설명이 자침의 변화하는 양이 북극성이 움직이는 양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차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항성의 움직임으로 자침의 변화를 설명했다는 것은 선장으로서 콜럼부스의 출중한 자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자차는 동서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탐험을 한 포르투갈 탐험대가 자차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에, 대서양을 거동권항법(距等圈航法, Parallel sailing)으로 항해한 콜럼부스는 자차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는 콜럼부스가 연안항해 위주이던 당시의 항해관습을 탈피하여 과감하게 원양항해를 시도하

71) Jane, *Ibid.*, p. cxxii.

72) 콜럼부스가 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다음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은 모든 물품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은 부를 형성시키며, 금을 소유한 자는 이 세계에서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금은 煉獄에서 영혼을 구해낼 수단이며, 낙원의 기쁨을 맛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Columbus, Letter to the Sovereigns dated 7th Jul. 1503, in *op. cit.*, ed. by Major, p. 196)

73) 콜럼부스가 자차를 발견했을 당시의 선위와 자차도에 대해서는 <지도 4>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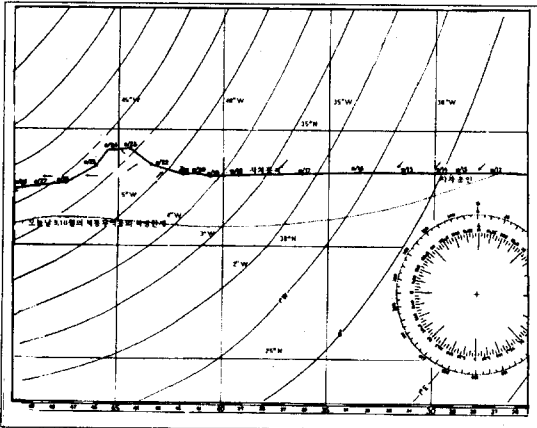
74) The Journal, p. 23.

75) The Journal, p. 24.

76) The Journal, p. 24

77) 윤여정, 천문항해학(한국해양대학교 해사도서출판부, 1973), p. 250 참조.

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물론 나침반, 중앙타,<sup>78)</sup> 삼각돛과 사각돛을 채용한 카라벨(Caravel)선 등의 기술적 조건들이 충족된 상황에서 가능했던 일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자료 : Samuel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 222.

<지도 4> 콜럼버스 탐험대의 추측선위와 자차도

이 점을 고려한다면, 포르투갈이 15세기 동안 국책사업으로 전개하였던 아프리카 탐험은 기본적으로 연안항해를 지리적으로 확장한 데 불과했다. 콜럼부스가 대서양 횡단 항해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의 견지에서 보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의 지리학적인 지식은 당시까지는 가장 보편적인 지식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원양항해를 시도하고 또 성공하였다는 것은 항해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콜럼부스가 지리상의 '발견'(geographical discovery)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중요하고도 두

드러진 것이었다.<sup>79)</sup> 왜냐하면 콜럼부스는 이들 땅으로의 항해와 귀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은 많은 탐험가들은 그가 개척한 항로를 통해 대서양을 횡단하였기 때문이다.<sup>80)</sup> 항해사가인 조지 넌(George Nunn)이 말한 바와 같이, 콜럼부스는 지리상의 '발견'에 있어 세 가지의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그는 유럽인들이 일찍이 발견하지 못한 육지를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가는 서쪽 항로와 북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동쪽 항로를 발견한 것이다.<sup>81)</sup> 그 가운데서도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로를 발견한 것이 콜럼부스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일 것이다.<sup>82)</sup> 왜냐하면 그것은 항로를 개척했다는 단순한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지의 바다에 대한 당대인들의 공포와 미신을 타파시켰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다.<sup>83)</sup>

2. 항해의 성과와 영향

콜럼부스가 7년여 동안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어렵게 후원을 얻어 냈고, 또 12년여에 걸쳐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은 것에 비하면, 그가 이룩한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이 약속했던 대륙(mainland)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서인도 제도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산출된 것도 아니었다. 이룩한 것이 있다면 서인도 제도에 최초의 식민 도시인 이사벨라(Isabella)와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를 건설하여 차후 유럽의 신대륙 경영을 위한 하나의 근거지를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콜럼부스는 자신의 탐험으로 스페인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자평하였다.<sup>84)</sup> 그러나 그의 탐험으로 스페인이 부유한 나라가 될만큼

78) 초기의 키는 선미 주위에서 배를 짓는 노였다. 그 다음으로 발전된 형태는 배의 선미 쪽 옆면에 45도로 장착한 操舵櫓(steering rudder)였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키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중앙타로 이는 선미재에 타를 고정시킨 것으로 보통 에탕보 키(gouvernail d'étambot)라고 알려져 있다. Braudel, 주경철 역, *op. cit.*, p. 581의 역사각주 재인용.

79) J.N.L. Baker, *A History of Geographical Discovery and Exploration* (Houghton Mifflin Co., 1931), p. 76.

80)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 670.

81) Boorstin, *op. cit.*, p. 363, J.N.L. Baker, *op. cit.*, p. 79. and P. Chaunu, *op. cit.*, p.159.

82) J.N.L. Baker, *op. cit.*, p. 79. and P. Chaunu, *Ibid.*, p.159.

83)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 670.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가 죽고 난 뒤 불과 반세기도 못되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광산이 개발되어 16세기 중반까지 신대륙으로부터 약 1억 3천 9백 7십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귀금속이 스페인으로 유입되었고, 17세기 중반까지 아메리카로부터 유입된 귀금속의 양은 유럽 자체 광산에서 산출된 양의 5배에 달하였다.<sup>85)</sup> 이렇게 유입된 신대륙의 귀금속은 유럽의 화폐 가치를 폭락시켜 '가격 혁명'을 촉발시켰고, 이는 다시 '상업 혁명'으로 이어져 유럽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커다란 밑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sup>86)</sup>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콜럼부스가 대서양 탐험으로 이룩한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콜럼부스가 이룩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이제까지 상호 고립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던 여러 문명들을 연계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었다. 그의 '신대륙' 탐험 이후에야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은 지속적으로 연관을 맺게 되었으며,<sup>87)</sup> 이로써 서구에 의한 비서구 세계의 지배가 본격화되고 서양이 동양을 경제·문화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대서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가 형성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식민 제국이 성립하여 서구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던 것이다.

콜럼부스의 대서양 탐험으로 야기된 최초의 문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의 영토 분계선 문제였다. 콜럼부스가 발견한 영토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sup>88)</sup> 콜럼부스는 자신이 발견한 지역이 '카타이' 대륙의 일부

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sup>89)</sup> 오랫동안 해양 탐험에 종사했던 포르투갈은 콜럼부스가 발견한 지역이 기네아(Guinea)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포르투갈은 1480년 스페인과 맺은 조약과 교황의 칙서에 의해, 기네아(Guinea)와 보자도르(Bojador) 곳 남쪽에서 발견되는 모든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포르투갈의 주앙 2세(João II)는 교황 알렉산더 6세(Alexander VI, 1492~1503)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알렉산더 6세는 1493년 5월 4일 칙서(Inter Caetera)를 통해, 아조레스(Azores) 제도와 베르데(Verde) 곳 서방 100 리이그 상에 가상의 선을 긋고, 그 선의 동쪽에서 발견되는 영토에 대해서는 포르투갈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사법권을 인정하고 그 선의 서쪽에서 발견되는 영토에 대해서는 스페인 국왕에게 모든 권리와 사법권을 인정하였다.<sup>90)</sup> 그러나 포르투갈의 주앙 2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스페인 국왕과 직접 협상함으로써 교황이 칙서로 정한 경계선을 베르데 곳 서방 370 리이그로 옮기는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 조약<sup>91)</sup>을 1494년 6월 7일 스페인과 체결하였다.<sup>92)</sup> 이 조약은 이후 북미와 남미의 전역이 소상하게 알려지게 되고 난 뒤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자국의 식민지로 삼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콜럼부스의 대서양 탐험은 유럽의 해외 팽창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었다.<sup>93)</sup> 이때까지 아프리카 연안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해상로를 찾으려는 노력은 포르투갈 일국으로 한정되었지만, 콜럼부스의 대서양 탐험 이후에는 유럽의 각국이 해외 탐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유럽은 바야흐로 본격적인 식민지 획득 경쟁에 나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84) Columbus, Letter to the nurse of Prince John, in *op. cit.*, ed. by R.H. Major, pp. 148, 164.

85) Gillespie, *op. cit.*, pp. 63~64 참조.

86) L.B. Packard, 최문형 역, 『상업혁명』 (탐구당, 1985), pp. 16~35 참조.

87) John E. Fagg, in *op. cit.*, ed. by R.H. Major, p. v.

88) Dixon R. Fox,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F.S. Crofts & Co., Inc., 1945),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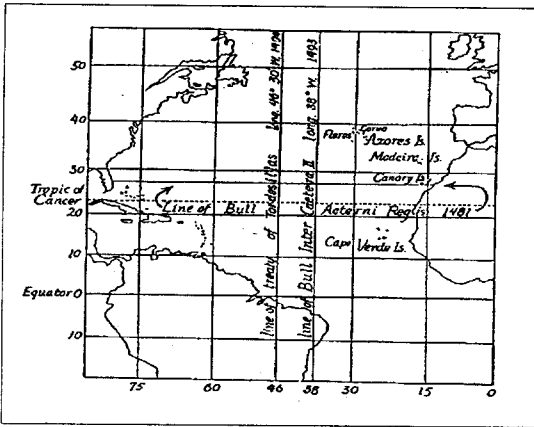
89) Columbus, Letter of Columbus on the Discovery of America(Lenox Library, 1892), p. 2.

90) Inter Caetera, in *op. cit.*, ed. by Dixon R. Fox, p. 3.

91) Tordesillas Treaty, in *Ibid.*, p. 4.

9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 분계선에 대해서는 <지도 5>를 참조하라.

93) James E. Gillespie, *op. cit.*, p. 32.



자료 : S.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 369.

<지도 5> 스페인-포르투갈 영토분계선

콜럼부스의 탐험이 끼친 직접적인 영향은 베스푸치(Amerigo Vespucci, 1451~1512)의 신대륙 탐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베스푸치는 콜럼부스의 탐험에 동참했던 오헤다(Alonso de Hojeda)가 인솔하는 탐험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콜럼부스의 2차 탐험 때 동행했던 오헤다(Hojeda)는 콜럼부스가 개척한 항로와 해도를 이용하여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 남미 파리아(Paria) 해안으로 항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획득하여 코사(Juan de la Cosa)와 베스푸치(Vespucci) 등을 대동하고 탐험에 나섰던 것이다. 탐험대는 1499년 5월 18일 카디스 항을 출항하여 베네주엘라(Venezuela)를 비롯한 남미 연안에 도달하였다. 이후 베스푸치는 세 차례의 탐험을 거듭한 끝에 콜럼부스가 도달한 곳이 이제까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503년 발간된 라틴어판 '신대륙(Mundus Novus)'이라는 제명의 4매 짜리 소책자에서 베스푸치는 "하나의 대륙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신대

륙'(mundus novus)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sup>94)</sup>고 주장했다. 그 뒤 독일의 지리학자인 발트제물러(Martin Waldseemüller, 1470~1518)가 『世界誌序說』(Cosmographia Introductio)을 발간하면서 새로 발견된 대륙의 명칭으로 베스푸치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오늘날 지구의 여러 부분들(구대륙)은 보다 광범위하게 탐험되었고, 또 네 번째 부분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유럽과 아시아라는 명칭이 여자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 발견자인 아메리고(Amerigo)의 이름을 따서 이 네 번째의 대륙을 '아메리고의 땅', 즉 '아메리계'(amerige), 또는 '아메리카'(america)라고 부르는 데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sup>95)</sup>

이로써 콜럼부스가 발견한 영토는 그 자신이 죽을 때까지 믿고 있었던 것처럼,<sup>96)</sup> 카타이나 씨팡고가 속한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이제까지 유럽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대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신대륙은 코르테스(Hernan Cortez, 1485~1547)와 피사로(Francisco Pizarro, 1474~1541) 등 이른바 '정복자'(conquistador)들의 공략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발트제물러는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남미 대륙에 한정해 사용하였다.<sup>97)</sup>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은 1538년 메르카토르(Gerardus Mercator)에 의해서였다. 그가 발행한 세계전도에는 아메리카라는 명칭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모두에 적용되었다.<sup>98)</sup> 이로써 신대륙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중세적인 지리관에 커다란 변화가 야기되었다.<sup>99)</sup>

94) R.A. Skelton, *op. cit.*, p. 92 재인용.

95) Boorstin, *op. cit.*, p. 393 재인용.

96) Columbus, Will of Columbus dated 19th May 1506, in *op. cit.*, ed. by W.E. Curtis, p. 509.

97) Skelton, *op. cit.*, pp. 90~91의 지도 참조.

98) Skelton, *Ibid.*, p. 104 참조.

99) Skelton, *Ibid.*, pp. 83~129 참조.

콜럼부스의 탐험의 영향은 당대에서 보다는 그 후 5세기에 걸쳐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콜럼부스의 탐험으로 말미암아 스페인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 인종을 중남미 전역에 걸쳐 이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sup>100)</sup> 그 결과 오늘날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라틴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해외 팽창의 서막이었으며,<sup>101)</sup>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역사는 어느 면에서는 콜럼부스의 탐험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02)</sup> 고마라(Gomara)의 주장처럼,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예수의 탄생과 죽음을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sup>103)</sup>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신대륙을 유럽에 소개함으로써 '세계의 조망'(world's perspective)을 크게 변형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sup>104)</sup>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 V. 맺음말

이상에서는 콜럼부스가 대서양 항해를 감행하게 된 배경과 항해의 경과, 그리고 그의 항해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여 보았다. 콜럼부스는 해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대서양 서방에 아직 유럽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곳을 발견하기만 하면 황금과 향료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탐험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탐험을 지원해 줄 후원자가 필요했으므로, 자신의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대의 지리학적인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는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1,500마일 지점에 씨팡고라는 황금향이 있다는 기사를

확인하게 되었고, 다이이의 『세계의 상』에서는 인도와 아프리카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대서양 서쪽 바다도 그리 넓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대인인 토스카넬리의 서한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재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탐험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스페인 궁정에 제출함으로써 후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네 차례에 걸쳐 대서양 횡단항해를 하였으며, 그 결과 하이티, 쿠바, 자마йка 등 서인도제도의 대부분을 탐사하였으며, 산토 도밍고 등 식민도시를 건설하여 유럽인들에게 대서양 서쪽에도 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의 대서양 횡단항해는 당시의 일반적인 항해술이었던 연안항해를 탈피한 대양항해의 효시를 이루었으며, 그의 항해로 말미암아 유럽은 항해열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사료

- Columbus, Christopher, trans. by Clements R. Markham : *The Journal of Christopher Columbus And Documents relating to the Voyages of John Cabot and Gasper Corte Real*(N. Y. ; Lenox Hill Pub. and Dist. Co., 1971)
- Columbus, Christopher, ed. by William E. Curtis : *The Existing Autographs of Christopher Columbus,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Annual Report*, 1895
- Columbus, Christopher, ed. by Willberforce Eames : *The Letter of Columbus on the Discovery of America*(N. Y., 1892)
- Columbus, Christopher, ed. by R. H. Major : *Four Voyages to the New World, Letters and Selected Documents*, 3rd ed.(Corinth Books, 1969)

100) Morison, *Christopher Columbus ; Mariner*, p. 154.

101) John E. Fagg, *op. cit.*, ed. by Major, p. v.

102)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 671.

103) Gomara, *Historia General de las Indias*, vol. I, p. 4(1922)(Cecil Jane, *op. cit.*, p. xv 재인용)

104) P. Chaunu, *op. cit.*, p. 143.

- Columbus, Christopher, ed. by Cecil Jane, *Four Voyages of Columbus*, rev. ed.(Dover Publication Inc., 1988)
- Columbus, Ferdinand : *Historie del S. D. Fernando Colombo*(Venice, 1571), trans. by Benjamin Keen : *The Life of the Admiral Christopher Columbus by His son Ferdinand*(New Brunswick ; Rutgers Univ. Press, 1959)
- Las Casas, Bartholomé de :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N. Y. ; Seabury Press, 1974), trans. by Herma Briffault : *Devastation of the Indies ; A Brief Account*(Baltimore ; Johns Hopkins Univ. Press, 1992)
- Paolo Toscanelli : Letter to Columbus, in *The Journal of Christopher Columbus* and in *The Life of the Admiral C. Columbus* by Ferdinand

2. 단행본

- Baker, J. N. L. : *A History of Geographical Discovery and Explora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31)
- Braudel, Fernand : *Civilisation matériels,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 Les Structures du Quotidien*(Paris, 1979), 주경철 역 :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 ; 일상생활의 구조』 (까치, 1995)
- Chaunu, Pierre, *L'expansion européenne du XIIIe au XVe siècle*(Univ. de France, 1969), trans. by Katharine Betram : *The European Expansion in the Later Middle Ages*(N. Y. ;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9)
- Elliott, J. H. : *Imperial Spain 1469~1716*(N. Y. ; Penguin Book, 1976)
- Fernández-Armesto, Felipe : *Columbus*(London ; Oxford Univ. Press, 1992)
- Gillespie, James E. : *A History of Geographical Discovery 1400~1800*(N. Y. ; Henry Holt And Company, 1933)
- Irving, Washington : *Life and Voyages of the*

- Christopher Columbus* (New York, 1831)
- Madariaga, Salvador de : *Christopher Columbus*(1967), 유공희 역, 『신대륙의 기수』, 『세계의 인간상』 (신구문화사, 1974)
- Morison, Samuel E. : *Admiral of the Ocean Sea ; Life of Christopher Columbus*(Boston, 1942)  
----- : *Christopher Columbus; Mariner*(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55)
- Packard, L. B. : *The Commercial Revolution 1400~1776*, 3rd ed.(Henry Holt and Company, 1948), 최문형 역, 『상업혁명』 (탐구당, 1985) (Harper and Row Publisher, 1966)
- Skelton, R. A. : *Explorer's Maps, Chapters in the Cartographic Record of Geographical Discovery*(London, 1958), 안재학 역 : 『탐험지도의 역사』 (새날, 1995)

3. 연구논문

- Davies, Arthur : The Loss of Santa Maria,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8, no. 4, Jul., 1953
- Heers, Jacques : De Marco Polo à Christophe Colomb ; Comment lire le Devisement du Monde?, *Medieval History*, 10, 1984
- Jane, Cecil : The Question of the Literacy Columbus in 1492,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X, 1930  
----- : The Opinion of Columbus concerning Cuba and the 'Indias', *Geographical Journal*, LXXXIII, 1929
- Lerner, John : The Certainty of Christopher Columbus ; Some Recent Studies, *History*, vol. 73, no. 237, Feb., 1988
- Nowell, Charles E. : The Columbus Quest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44, no. 4, 1939
- Nunn, Georges E. : The Imago Mundi and

- Columbu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40, no. 4, Jul., 1935
- Schlereth, Thomas J. : Columbia, Columbus, and Columbianism,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79, no. 3, Dec., 1992
  - Taylor, E. G. R. : Idée Fixe ; The Mind of Christopher Columbus,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XI, no. 3, Aug., 1931
  - Watts, Pauline M. : Prophecy and Discovery ; On the Spritual Origin of Christopher Columbus's Enterprise of the Indie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0, 1985
  - 최영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